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연극분야 심사 총평

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연극분야)는 지난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에 이은 것으로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공연예술의 위기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2020년 6월 8일 공지이후 6월 17일 (수) 17:00시 마감을 기준으로 총 366건의 지원 서류가 접수 되었습니다.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한 6건의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긴급지원인 만큼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별도 감점은 주지 않지만, 동점일 때 후순위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372건의 지원단체를 심의대상으로 했습니다.

1차 서류심의에서는 자료 미비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는 개별 연락 문자 발송 등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긴급지원이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을 제한 하지 않고자 하는 심의 원칙에 따랐습니다.

2차 심의는 지원단체가 제출한 지원서를 중심으로 심의위원들의 개별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3차 토론 심의는 ‘공연예술계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기’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연극계에 폭넓게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모 기준에 따라 최근 2년 간 1작품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한 단체로 하반기 공연활동을 기획하거나 확정된 단체를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금을 수혜한 단체의 경우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또한 단체의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한 작품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단 민간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사업에 경우 제작지원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았으며 페스티벌 참가 조건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연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의 활동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의 수도 고려했습니다.

가능하면 지원신청액에 가깝게 지원액을 결정하고자 했으나 한정된 예산, 사업 수혜 대상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지원액의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또 서류 검토 과정에서 신청액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조정했습니다.

한국연극협회는 이 사업의 주관처입니다. 한국연극협회의 회원과 비회원 연극단체 사이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회원단체와 비회원단체의 지원신청현황(비율)을 기준으로 회원단체와 비회원단체의 지원비율을 정하고 심의에 반영했습니다.

	주관처 회원단체	주관처 비회원단체	계
지원단체	92(건)	280(건)	372(건)
선정단체	34(건)	82(건)	116(건)
지원액	3(억)	7(억)	10(억)

이러한 기준으로 총 접수 건수 372건 중 총 116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단체별 지원액은 최저 250만원 ~ 최대 9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위기가 광범위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또한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번 지원사업 역시 심의와 선별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지원단체의 2/3는 지원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원액 역시 프로젝트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가 깊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심의과정에서 숙고를 거쳤지만 안정한 창작환경을 저해하는 사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서울시와 주관처인 한국연극협회가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극계는 그동안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공공지원사업의 주최, 주관처 역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염병 위기 이후 공공극장이 폐쇄라는 강경 조치로 이어진 것과 달리 민간단체 민간극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민간단체와 민간극장의 방역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관객들의 협조 속에서 지금까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예술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연극인, 공연예술가 그리고 관객들의 노력에 공공정책이 더 시의 적절하게 힘을 보태어야 할 때입니다. 전염병의 위기와 공연예술의 위기에 함께 맞선 예술가, 시민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2020년 06월 29일

심사위원장 : 지 춘 성

심 사 위 원 : 공재민, 김관, 김소연, 오준석